

미국, 중국 Oilseed 시장 넘본다!

농화학 메이저 중국 생산확대 주력 ... 중국 유도제품 수요 급강세

미국의 농화학 메이저들이 최근 중국의 Oilseed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중국의 GDP 예상 성장률은 8%를 넘어서 세계 최대를 기록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지방(Fat), 오일(Oil) 및 식료품 소비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Oilseed 유도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American Fats & Oils Association(AFOA)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식생활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식료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또 사료 및 식물유(Vegetable Oil) 수요증가로 중국은 현재 세계 Oilseed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중국은 2000만톤 이상에 달하는 세계 대두 거래량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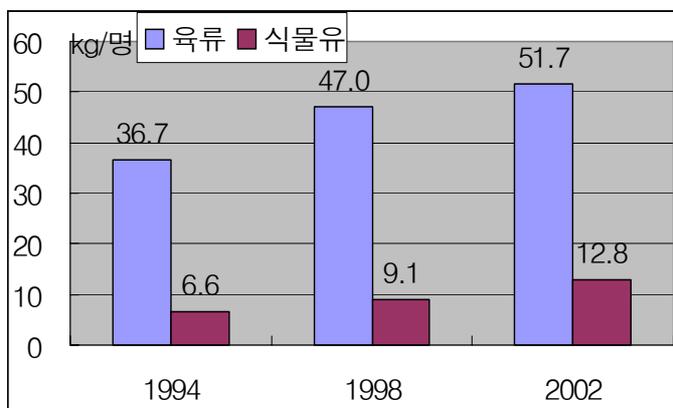
중국은 최근 Oilseed 재고부족으로 Oilseed 특히 대두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식물유 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03-04마케팅 연도(2003년 10월 시작)부터 중국의 대두유 구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중국의 검열이 엄격해 대두유 출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강세를 회복했다. 따라서 미국 농림부(USDA)는 미국의 중국 대두유 수출량이 2002-03마케팅 연도 2140만톤에서 2003-04년마케팅 연도에 220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cher Daniels Midland(ADM)를 비롯한 농화학 메이저들은 이미 중국 기업과 합작해 Oilseed 가공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 왔다. ADM은 사료, Oilseed 분쇄, Oil 정제 및 관련 플랜트를 포함해 중국에서 20개 이상의 합작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2003년 초 Wilmar Holdings과 합작으로 중국 Shanghaiguan에 대두 가공 플랜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설 플랜트는 2004년 중반 완공될 예정으로 ADM의 Arcon계열 제품인 기능성 대두 단백질 농축사료(Functional Soy Protein Concentrate), 특수 대두분말(Specialty Soy Flour) 및 식용 대두 등을 생산하게 된다.

ADM은 중국의 식료품 및 오일 수요강세에 힘입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4년에도 중국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1인당 육류 및 식물유 소비량 (단위: kg/명)



중국의 식물유 소비는 연평균 100만톤 증가하고 있어 미국 소비신장률의 5배를 기록하고 있다. USDA는 중국의 식물유 생산량이 2002년 1050만톤에서 2003년 113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식물유 생산은 여러 지역에 중소규모 농장으로 분산돼 있으며 대부분 구시대 생산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는 6000개 이상의 Oilseed 분쇄 및 정제 플랜트가 있으나 주로 1일 생산능력 30-100톤의 소규모 플랜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일 1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플랜트수는 200개에도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Oilseed 가공분야는 생산규모, 장비, 기술, 자금력 및 경영능력 면에서 볼 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식물유 및 식료품소비 증가에 따라 Oilseed 가공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 식료품농업정책연구회(FAPRI)에 따르면, 중국의 식물유 소비 및 생산량은 앞으로 연평균 약 3% 증가하는 반면, 단백질 식료품 소비는 약 4%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분쇄용 Oilseed 소비는 약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농화학 생산기업들은 바로 중국의 Oilseed 수입 및 오일 수요강세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오일 수요증가에 따라 Oilseed 가공능력이 확대됨으로써 대두유 사료 생산이 과잉을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축산분야 성장속도는 모든 대두유 사료 생산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단백질 사료 순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09>